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최숙희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on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

Sook-Hee Choi

Department of Nursing, Youngs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B, Y시의 간호대학생 18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독립 t-검증, 일원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취업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23±0.64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의 차이에서 건강상태(F=3.062, p=.048)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와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r=-.353, p<.001), 외모만족도(r=-.261, p<.001), 진로동기(r=-.289, p<.001)는 취업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로 나타났고, 취업 스트레스를 21.0%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취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취업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ppearance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on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 Subjects were 188 nursing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2.0. The degree of job seeking stress was 2.23±0.64.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ego-resilience(r=-.353, p<.001), appearance satisfaction(r=-.261, p<.001), career motivation(r=-.289, p<.001). The factors influencing job seeking stress were ego-resilience, appearance satisfaction. These factors explained 21.0% of the varian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velopment of practice program to reduce job seeking stress and survey about various factors influencing job 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Appearance Satisfaction, Career Motivation, Ego-Resilience, Job Seeking Stress, Nursing Studen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과는 비교적 취업이 용이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간호학과 신설과 증원으로 인하여 간호대학 졸업생 수가 증가하면서 취업을 위해 학업성적을 올리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격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다[1]. 이는 간호학생은 타 전공에 비해 취업률은 높

본 연구는 2018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ook-Hee Choi(Youngsan Univ.)

Tel:+82-10-3859-4422 email: mind4560@ysu.ac.kr

Received December 13, 2018

Revised January 14, 2019

Accepted March 8, 2019

Published March 31, 2019

지만, 성적에 따라 눈높이와 지원하는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취업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2]. 또한 이론수업, 실습수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바쁜 학사 일정 중에 국가고시 준비와 취업준비가 같이 이루어짐으로 4학년 졸업학년의 취업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3-4], 비간호 보건계열 보다 높은 취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2015년 이후 다수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확인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취업스트레스가 높은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에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취업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부적응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취업스트레스가 불안, 분노, 우울감 등의 정서,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6]는 간호대학생을 외부적 요인이나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더라도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감을 형성하며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탄력성은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조절요인 중 하나로[7]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대해 좌절하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8].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9], 치위생과 학생[10], 사회복지전공생[11]에게서도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취업스트레스에 조절요인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면접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로 인해 취업을 위한 외모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강조되었다[12]. 대학생들은 면접을 위한 이미지 형성에 노력하고 있고, 면접경험자 84%가 외모관리에 투자하겠다는 결과[13]는 남녀를 불문하고 취업을 위한 외모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증가됨을 알 수 있다[14]. 선행연구에서 대학생은 면접시 외모 비중과 취업스트레스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12], 치위생과 학생들은 외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1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15] 외에는 외모와 취업스트레스와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고 단순한 신체가 아닌 자신의 신체에 대한 존중을 통한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진로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태도를 말하며, 개인의 동기와 가치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과 진로성공에 영향을 준다[16]. Jo 등[17]은 진로동기의 한 영역인 진로정체감은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취업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간호직을 선택하는 경우 직업의 부적응뿐만 아니라 조기기직도 높아지고 있어[18] 진로동기에 대한 탐색은 취업의 선택과 방향뿐만 아니라 직업의 만족과 이직에도 영향을 줄 것[19]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취업스트레스와 관련된 개인적 변인을 포함한 일반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결과[7]를 바탕으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대학생 개인의 관리와 조절 요소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보고,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한다.
-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를 파악한다.
- 셋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넷째, 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알아 보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Y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였다(IRB-201704-HR-019-02).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8년 5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였고, B시, Y시에 소재한 자료수집을 허락한 간호학과 4학년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설문을 작성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작성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스트레스 연구를 참조하여[7] 다중회귀분석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2개로 하였을 때 필요한 대상자수는 184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를 배부하여 193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5부를 제외한 18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 중 여학생은 169명(89.9%), 남학생은 19명(10.1)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외상 등 변화하는 상황의 요구에 좌절하지 않고 조절과 대처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20]으로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Atsushi 등[21]이 개발한 Resilience Scale를 Min[22]이 우리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 중에서 중복되는 문항을 제외한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관심과 흥미의 다양성(1, 4, 8, 11, 14), 감정조절(2, 5, 7, 9, 12, 16), 긍정적 미래지향성(3, 6, 10, 13, 15) 3개의 하위영역,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이다. Min[21]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90, 관심과 흥미의 다

양성 Cronbach's α =.80, 감정조절 Cronbach's α =.71, 긍정적 미래지향성 Cronbach's α =.75였고,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848, 관심과 흥미의 다양성 .775, 감정조절 .722, 긍정적 미래지향성 .859이었다.

2.3.2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는 자기 자신의 신체 각 부위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느낌의 정도[15]로 Mendelson과 White[23]의 신체존중감 척도(Body Esteem Scale)를 Lee[24]가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im, Kim[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20으로 나타났다.

2.3.3 진로동기

진로동기는 개인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태도[16]로 본 연구에서는 Kim, Jyung[2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하위요인 진로정체감 5문항, 진로통찰력 5문항, 진로탄력성 6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16점에서 최고 80점이다. Kim, Jyung[25]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808-.8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 는 .931, 진로정체감 .877, 진로통찰력 .788, 진로탄력성 .847로 나타났다.

2.3.4 취업스트레스

취업스트레스는 취업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1]로 본 연구에서는 코넬대학의 '스트레스 측정법'[26]을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게 Hwang[27]이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72문항을 개발한 것을 수정·보완한 Kim, Kang[28]의 취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2문항으로 하위영역은 성격, 가족환경, 학교환경, 학업, 취업불안 스트레스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취업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Kang[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88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 는 .932, 성격스

트레스 .855, 가족환경 스트레스 .873, 학업 스트레스 .853, 학교환경 스트레스 .860, 취업불안 스트레스 .698 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정체감, 취업스트레스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와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규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조사한 결과 모든 변수의 왜도

의 절대값이 3.0이하, 첨도의 절대값이 10.0 이하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여자는 169명(89.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연령은 20-22세가 136명(72.3%)으로 많았다. 거주형태는 집이 127명(67.6%)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는 무교가 113명(60.1%)으로 많았다. 성적은 중이 145명(77.1%)으로 가장 많았고, 전공만족도도 중이 139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졸업 후 진로희망은 상급종합병원 98명(52.1%), 종합병원 77명(41.0%) 순으로 많았고, 건강상태는 좋음이 100명(53.2%)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는 건강상태($F=3.062$, $p=.048$)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2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 취업스트레스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 및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자아탄력성은 5점 만점에 3.49 ± 0.45 점, 외모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3 ± 0.45 점이었고, 진로동기는 5점 만점에 평균 3.61 ± 0.49 점, 취업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2.23 ± 0.64 점으로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 of job seeking str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Job seeking stress	
				M±SD	t/F(p)
Gender	Female	169	89.9	2.24±0.64	.146(.884)
	Male	19	10.1	2.21±0.64	
Age	20-22	136	72.3	2.27±0.65	1.215(.226)
	≥23	52	27.7	2.14±0.61	
Residential type	Home	127	67.6	2.23±0.64	.706(.495)
	Dormitory	32	17.0	2.34±0.70	
	Board oneself	29	15.4	2.15±0.57	
Religion	No	113	60.1	2.20±0.62	-.760(.448)
	Yes	75	39.9	2.28±0.67	
Academic grade	High	22	11.7	2.32±0.83	2.083(.127)
	Middle	145	77.1	2.19±0.59	
	Low	21	11.2	2.47±0.71	
Satisfaction on major	Good	36	19.1	2.15±0.54	1.638(.197)
	Moderate	139	73.9	2.23±0.66	
	Bad	13	6.9	2.52±0.61	
Desired career path	Grade 3 university hospital	98	52.1	2.29±0.64	.853(.428)
	General hospital	77	41.0	2.19±0.64	
	Etc.	13	6.9	2.10±0.63	
Health state	Good	100	53.2	2.13±0.67	5.241(.023)
	Moderate	88	46.8	2.35±0.59	

Table 2. Degree of ego-resilience, appearance satisfaction, career motivation, and job seeking stress (N=188)

Variable	M±SD	Min	Max
Ego-resilience	3.49±0.45	2.50	4.75
Appearance satisfaction	2.93±0.45	1.35	3.90
Career motivation	3.61±0.49	2.38	5.00
Job seeking stress	2.23±0.64	1.00	4.36

3.3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와 취업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r=.353, p<.001$), 외모만족도($r=.261, p<.001$), 진로동기($r=.289, p<.001$)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진로동기는 자아탄력성($r=.659, p<.001$), 외모만족도($r=.225, 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외모만족도는 자아탄력성($r=.266,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appearance satisfaction, career motivation, job seeking stress (N=188)

Variable	Ego-resilience	Appearance satisfaction	Career motivation	Job seeking stress
	r(p)			
Ego-resilience	1			
Appearance satisfaction	.266 (<.001)	1		
Career motivation	.659 (<.001)	.225 (<.001)	1	
Job seeking stress	-.353 (<.001)	-.261 (<.001)	-.289 (<.001)	1

3.4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나타낸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와 일반적 특성에서 취업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건강상태를 더미변수 처리하고 투입하여 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하였을 때, 공차한계가 .532-.926으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80-1.878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1.814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3.167, p<.001$), 수정된 결정계수(R^2)는 .210으로 설명력은 21.0%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탄력성($\beta=.299, p=.001$), 외모만족도($\beta=-.187, p=.008$)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는 평균 2.23±0.64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한 Choi, Jung[29]의 연구에서 2.47점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간호대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14]의 연구에서 52.56점(2.38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낮았고, 간호대학생 2-4학년을 대상으로 한 Yang[7]의 연구에서 46.49(2.11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에서 건강상태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이전학기 학업성적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0], 성별, 대학만족도, 학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31]와는 차이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졸업학년인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4학년 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비교에는 한계가 있으나 4학년 보다 3학년에서 취업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결과[3-310]를 통해 학년별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4학년 1학기에 3학년까지의 성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취업에 대한 준비를 통해 4학년 취업스트레스의 조절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또한 연구대상자에 따라 취업스트레스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스트레스의 차이에서도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여 반복연구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

Table 4. Factors affecting job seeking stress

(N=188)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Constant	4.590	.432		10.615	<.001
Health state*	.090	.082	.075	1.098	.274
Ego-resilience	-.402	.121	-.299	-3.325	.001
Appearance satisfaction	-.250	.093	-.187	-2.686	.008
Career motivation	-.105	.107	-.087	-.984	.327

F=13.167(p<.001), Adj R²=.210

*Dummy variable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건강상태에 따라 취업스트레스에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힘든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를 나타내고 있어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준비도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요인으로 확인할 필요성을 나타낸다.

연구대상자의 취업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 진로동기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취업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7,11]와 유사하며, 취업스트레스와 외모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12,15]와 유사하고, 진로스트레스가 진로동기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 [32]와도 유사하다. 또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가 확인되었다. 자아탄력성은 대학생의 진로결정과 취업준비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심리적 부적응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 [7]로 자아탄력성의 증진으로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스트레스에 잘 적응한다는 연구결과 [33]를 바탕으로 취업기술과 면접 기술 등의 취업역량 강화도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의 증진을 위한 중재나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자아탄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취업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취업에 있어 취업면접이 중요해지면서 외모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상관성이 높아지면서 간호대학생의 외모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와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우울과 취업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나 [34] 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만족이 대학생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외모만족도가 자존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나

이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다. 외모로 자신의 전체를 평가하는 잘못된 인식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적 능력과 장점을 살리면서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취업에 대비할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 및 인지중재프로그램 등의 적용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 코칭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취업스트레스가 낮아져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 [35]를 통해 취업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취업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진로동기는 취업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진로동기는 진로탄력성, 진로통찰력, 진로정체성을 포함하는 요인 [36]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동기와 취업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나 사회복지 전공생의 진로정체감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연구를 통해 취업스트레스의 영향요인으로 진로동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한 전략수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한 결과 [37]와 진로동기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로동기를 강화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필요함을 나타낸 결과 [38]는 진로동기에 대한 반복연구를 통해 진로동기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취업스트레스의 증진을 위해 진로동기의 향상을 가져오는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취업 상담, 취업 중재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취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불안, 우울 등의 정신건강의 향상 [39]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의 정도를 확인하고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 외모만족도를 확인하였고, 취업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동기를 포함한 취업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반복연구와 취업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M. H. Choe, J. H. Kim, E. S. Nam, Y. M. Lee, J. H. Hwang, M. K. Lee, S. J. Yoon, H. J. Park, "Factors affect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4, No.2, pp.122-131, 2015.
DOI: <http://dx.doi.org/10.5807/kjohn.2015.24.2.122>
- [2] E. K. Ahn,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 and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on senior nursing students' job seeking stress-perspectives of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6, pp. 365-372, 2018.
DOI: <http://doi.org/10.15207/JKCS.2018.9.6.365>
- [3] S. M. Ahn, K. H. Kim, "The influence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 seeking stress on nursing students' career maturit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ve Society*, Vol.19, No.1, pp.555-556, 2018.
DOI: <http://doi.org/10.5762/JKIS.2018.19.1.555>
- [4] S. H. Choi, H. Y. Lee, "Affecting factors in unemployment stress among college students-focused on physical symptoms, depression, anxiety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2, pp.808-814,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12.808>
- [5] H. S. Jeon, M. R. Le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and health care relat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ve Society*, Vol.17, No.12, pp.643-651, 2016.
DOI: <http://dx.doi.org/10.5762/JKIS.2016.17.12.643>
- [6] M. J. Park, J. H. Kim, M. S. Jung, "Career counseling: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for preparing employ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0, No.1, pp.417-435, 2009.
DOI: <http://dx.doi.org/10.15703/kjc.10.1.200903.417>
- [7] S. A. Yang, "Covergence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job-seeking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7, No.4, pp.171-183, 2017.
DOI: <http://doi.org/10.22156/CS4SMB.2017.7.4.171>
- [8] J. H. Block, A. M. Kremer,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No.2, pp.349-361, 1996.
DOI: <http://doi.org/10.1037/0022-3514.70.2.349>
- [9] E. H. Park, E. T. Lee, "The effects of undergraduates'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go-resilience on jobs seeking stres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4, No.4, pp.5-30, 2013.
- [10] S. J. Kim, H. H. Kim, "Impact of appearance satisfaction and ego-resilience on employment stres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14, No.1, pp.75-84, 2014.
DOI: <http://dx.doi.org/10.13065/jksdh.2014.14.01.75>
- [11] I. H. Yun, "Majoring in social work majors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career identity, employability, ego-resilience research on the effect of careers stress: focusing on the latent mean analysis by gend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ve Society*, Vol.17, No.6, pp.308-314,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6.308>
- [12] M. K. Cho, E. J. Choi, J. W. Lee, Y. N. Lee, J. Y. Chae, "Correlations in appearance, job-seeking stress and job-seeking anxiety in undergraduat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10, No.2, pp.141-150, 2013.
- [13] H. R. Kim, "A influence of external images of job applicants on interviewers' judgement",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rea International Culture University, Cheongyang, 2009.
- [14] M. Y. Park, T. H. Kim, "A study on self-esteem, appearance satisfaction, appearance complex, employment anxiety, employment str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2, No.3, pp.37-46, 2018.
- [15] I. S. Lee, "A study on appearance satisfaction, self-esteem, depression, and employment stress among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5, pp.2487-2500, 2011.
- [16] R. Day, T. D. Alle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self-efficacy with protege 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64, No.1, pp.72-91, 2014.
- [17] Y. S. Jo, Y. N. Jang, Y. I. Cho, "Alongitudinal chang model of career identity in adolescents: using cohort sequential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0, No.1, pp.427-442, 2018.
- [18] Y. O. Yang, S. O. Lee,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4, No.2, pp.979-989, 2012.
- [19] H. Cho, G.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Vol.20, No.2, pp.163-173, 2006
- [20] C. L. Jew, K. E. Green, J. Kroge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silie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32, No.2, pp. 75-89, 1991.
- [21] O. Atsushi, N. Hitoshi, N. Shinji, K. Motoyuki,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Vol.35, pp.57-65, 2002.
- [22] D. I. Min, "The effects of family strengths, school life health and ego-resilience on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2007.
- [23] B. K. Mendelson, D. R. White, "Manual for the body-esteem scale for children unpublished manuscript", Concordia University, Montreal, Quebec, 1993.
- [24] J. A. Lee, "Sociocultural influences on baby-appearance satisfaction of 4th, 6th, and 8th grade childre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11, pp.77-97. 2005.
- [25] B. K. Kim, C. Y. Jyung,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4, No.2, pp.49-71, 2012.
- [26] M. Shepherd, B. Cooper, A. C. Brown, G. W. Kalton, *Psychiatric illness in general practi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6.
- [27] S. W. Hwang, "A study on employment stress of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1998.
- [28] H. J. Kim, Y. R.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eking stress and career maturity of dance major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Dance Education*, Vol.2, pp.57-64, 2008.
- [29] H. J. Choi, K. I. Jung,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job-seeking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preparing for employment",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4, No.1, pp.61-72, 2018.
DOI: <http://doi.org/10.11111/jkana.2018.24.1.61>
- [30] G. O. Noh, Y. S. Im, "The influence of perfectionism and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job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3, pp.1655-1668, 2017.
- [31] B. S. Park, H. N. Cho, B. J. Park, "Relationship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elf-esteem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ve Society*, Vol.16, No.2, pp. 1109-1117,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2.1109>
- [32] H. J. Cho, H. J. Sh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gender differences in the moderation effects of career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22, No.3, pp.445-465, 2017.
- [33] B. G. Bak, S. Y. Lee, J. H. Song, "Development of ego-resiliency enhancement program and testing its effec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4, No.1, pp.61-82, 2010.
- [34] Y. J. Hwang, K. Y. Jo, T. S. Yoo, "The study on cosmetic surgery behavior according to appearance concern, body cathexis, and self-esteem", *Journal of Fashion Business*, Vol.22, No.4, pp.17-25, 2003.
- [35] Y. S. Seo, C. Y. Jeong, "Effect of career coaching program for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self-leadership, and employment-str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ve Society*, Vol.17, No.12, pp.138-14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12.138>
- [36] M. London,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8, No.4, pp.620-630, 1983.
- [37] E. H. Hwang, C. M. Hong, S. J. Shin, "Predictors of career decision making self efficac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3, pp.1729-1740, 2016.
- [38] Y. S. Im, H. I. Kwon, G. O. Noh, K. R. Bae, "Verbal abuse and lowered career ident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4, pp.2315-2328, 2016.
- [39] M. S. Yoon, H.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job prepar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oderating effect of problem drinking",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9, No.3, pp.109-137, 2012.

최 속 희(Sook-Hee Choi)

[정회원]



- 2006년 8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0년 8월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4년 1월 ~ 2008년 4월 : 부산광역시 정신보건센터 상임팀장
- 2014년 3월 ~ 현재 :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정신간호